

■ 전병선의 大街里(대가리) (15)

신 개선문 - 승리의 꽃 (3) (Grande Arche de la Defense)



텔르리의 “카루젤 개선문”에서부터 상젤리제의 “승리의 개선문”을 지나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곳에 라 데팡스(신도시: La Defense)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 개선문(Grande Arche de la Defense)이 미테랑(Francois Mitterrand) 대통령 때인 1983년에 짓기 시작하였다.

1958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파리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 이름을 la Defense(우리 말로 하면 국방? 혹은 방어라는 뜻이다)라고 지으며 파리의 미래형도시를 구상하기 시작하였다.

역사적인 시간의 바탕 위에 오래 된 도시이자 수도 없이 많은 아름다운 건축물과 고적을 가지고 있는 파리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“이상 도시로서의 꿈”을 더 이상 실현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.

도시 계획 자체가 수도 없이 고쳐지며 보완되던 중,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를 위하여 “개선문의 20세기 버전”을 주제로 국제공모전을 벌였는데 36개국 471개의 작품 중 덴마크 건축가 스프레클레센(Johan Otto Von

Spreckelse)이 뽑혔다.

스프레클레센은 “개선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문이라면 신 개선문은 미래와 인류애를 상징하기 위해 세운 것”을 표현하였다고 한다. 1987년 그가 죽은 뒤에는 프랑스 건축가 폴 앙드뢰가 이어 받아 1989년 완성시킨 합작품이다.

무게가 30만 톤이나 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, 가운데에는 1ha에 달하는 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는데, 안쪽 공간은 개선문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한다. 승리의 개선문을 뚫 뚫어 신 개선문 안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 단다.

다른 이야기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라고 한다. 계산 상으로의 이야기일 뿐 넣어본 사람이 있겠는가?

또 하나 특이한 점은 역사의 축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획일적인 국가주의를 싫어하는 프랑스 국민들을 위해 개선문과 정확하게 직선을 맞추지 않고 6~7도 비틀어 건설했다고 한다. 우리 말로는 “신 개선문”이라고 부르지만 프랑스 말로 지어진 이름을

직역하면 “라 데팡스의 거대한 문(Grande Arche de la Defense)” 혹은 “방어를 위한 큰 문” 정도가 될 것 같다.

그러나 건축가의 말 대로 앞의 2개의 문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문인 셈이다. 두 개의 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을 환영하며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문인데 비해 세 번째 문은 미래와 인류애를 위해서 방어라는 이름을 가진 신 도시에 세워진 거대한 문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방어할 수 있는 아무 조치가 없는 텅 빈 공간이니 무엇으로 어떻게 방어를 하겠다는 계획일까? 이들의 숨은 뜻을 알고 싶다.

과연 요즈음의 세상에서도 인류애를 위해서 무방비가 최상의 방비가 될 수 있을까? 나만 모르는 어떤 비밀이 그 큰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30만 톤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?

이 문 주변으로는 운통 정부 청사들이 몰려 있고, 많은 공기업 및 국제 기구 등이 들어 있는 현대식 건물들로 이루어져,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“라 데팡스”의 또 다른 볼거리이며, 광장에 설치된 현대 미술가들의 조각상들 또한 볼거리이다.

중양의 공간에는 강철 와이어와 유리를 이용한 전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정상까지 올라가 볼 수 있다. 정상에는 카페와 전망대가 있는데, 정상에 오르면 파리의 도시 계획의 기본 축인 그랑 악스(Grand Axe)를 볼 수 있고 상젤리제의 개선문, 텔르리의 카루젤 개선문과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다.

제일 작은 카루젤 개선문에서 시작해서 상젤리제 거리를 따라 서북쪽으로 직진하면 만나는 조금 더 큰 승리의 개선문(Arc de Triomphe)을 지나 찰스 드골 대로를 따라 계속 직진하여 만나는 엄청 큰 빈 공간을 가진 신 개선문(Grande Arche de la Defense)이 일직선 상에 지어져 있으니 이 직선이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려는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?

살아남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승리의 기록 속에 남은 죽은 자들의 이야기? 결국은 다 허공으로 산산이 부서진 그 이름들이여...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전쟁으로 땅을 빼앗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인류애의 마음으로 신 개선문을 “방위를 위한 거대한 아취”라고 이름 하였을까?



◀ 신 개선문(Grande Arche de la Defense). 미테랑(Francois Mitterrand) 대통령 때인 1983년에 지어졌다.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모를 한 결과 덴마크의 건축가 스프레클레센(Johan Otto Von Spreckelse)가 설계한 것으로 엄청 큰 허공으로 유명하다. (자료사진)

▶ 길 끝에 조그마하게 승리의 개선문이 보인다. 주변의 모든 건물들도 파리 시내와는 달리 초현대식 건물들이다. 마치 북미의 큰 도심에 온 것 같은... (자료사진)

